

▲ 부경양돈농협 계열화사업 참여농가인 청풍농장 김진관 사장(좌)과 양돈지원실 김만래 대리.

취재 : 안 혜 성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이 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경양돈농협의 양돈계열화 참여 농가인 청풍농장(대표이사 김진관)을 찾았다.

### 부경농협 이사 등 역임한 양돈가

청풍농장 김진관 사장은 1970년대 양돈을 시작한 전문 양돈인이다. 처음 양돈을 시작할 때에는 옛날 재래식 양돈장으로 돼지를 키웠다고...

1970년대에 양돈을 시작해 1978년에는 전국적으로 대한양돈협회를 창립하는데 힘을 모았으며 1983년에는 부경양돈농협을 창립하는데 역량을 모아 지역 양돈농가들에게 보탬을 주기도 했었다.

김진관 사장은 부경농협 이사도 역임하면서 양돈인들의 단합에 앞장서 활동했었다. 그런 그였기에 누구보다도 부경양돈농협의 계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믿고 참여하고 있었다.

청풍농장은 부경양돈농협 계열화 사업 참여 농가 중 2003년 상반기 성적 우수 농가중

생산자가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부경양돈농협 양돈계열화는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통일된 종돈·사료·사양관리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돈육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다.

## 나는 농장의 사장이 아니라 농장장이다

김진관 사장의 농장은 총 4동의 돈사로 이루어져 있고 직원 4명을 두고 김 사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김 사장은 본인은 사장이 아니라 청풍농장의 농장장이라고 스스로 지칭하고 있다. 모든 일을 직원들에게만 맡기고 농장일에 참여하지 않는 농장 사장과는 틀리게 김 사장은 직접 일선에서 돼지를

돌보고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농장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돼지의 상태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해야 만이 농장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한다.

김진관 사장의 인력 운영은 남다른 점이 있다. “농장 직원은 하루에 4시간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것이 김 사장의 지론이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게 되면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풍 농장의 직원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양돈에 대한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 모든 300두, 상시 사육 두수 3800두의 성적 좋은 양돈장

청풍농장은 모든 300두의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의 양돈장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300두이면 상시 사육두수는 3,000두 전후가 되는 것이 보통 양돈계의 상식이다.

그러나 청풍농장은 생산력과 사양관리가 잘 되어 있어 상시 사육두수가 3,800두 전후가 되고 있다. 이는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항상 이유된 자돈은 판매를 해 오고 있다.

## 나는 돼지만 잘 키우면 됩니다

지난 9월 남부지방과 강원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매미” 때문에 김진관 사장



▲ 철저한 농장관리로 자돈사의 복도가 오물없이 깨끗하다.



의 농장도 적잖은 피해를 보았다. 퇴비사의 피해가 가장 심했고 돈사도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부경양돈농협의 양돈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로서 가장 이로운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김 진관 사장은 한마디로 짧라 말한다. “부경양돈농협에서 다 해 줍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상한 대답처럼 들릴지 모르나 김 사장은 돼지를 키우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부경양돈농협에서 모두 도와 준다는 것이었다.

김 사장의 양돈장은 4동이 모두 무창 돈사로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무창 돈사 하면 돼지를 거쳐 키운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무창 돈사로 돼지를 키울 경우에는 습도, 환기, 암모니아 가스 등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다.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무창돈사는 생산성과 성



적이 우수할 수 없다.

청풍농장은 무창돈사임에도 돈사안의 습도, 환기, 냄새 등이 무척 양호한 상태였다.

부경양돈농협 양돈지원실에서는 전문 인력들이 돈사의 환경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었다.

물론 양돈지원실의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다.

부경양돈농협의 조합원으로 양돈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가장 큰 장점은 사료를 싼 가격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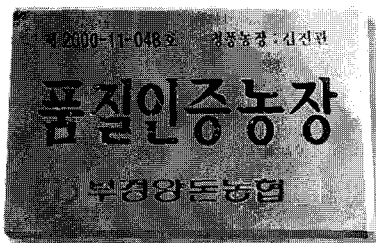
농장마다 거래 방법 등에 따라 kg당 사료가격이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타 사료회사의 사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사료

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경양돈농협은 김해 축산물 공판장과 부경 축산물 공판장을 직접 운영하고 자체 돼지고기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 출하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김 사장은 강조한다.

“돼지 잘 키워 놓으면 차가 와서 출하도 맡아 해 주고, 출하하고 나서 알아서 기준에 따라 좋은 가격으로 정산해 주고, 손으로 가장한 데이터를 부경농협 양돈지원실로 보내면 농장의 성적·경영 분석해서 보내 준다” 이것이 김 사장이 말하는 부경양돈농협 양돈계열화 참여 농가의 장점이다.

또 요즘 같이 안전한 돈육



생산이 양돈업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양돈장에서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질병 검사를 실시해 주고 컨설팅의 역할까지 해 주고 있었다.

## 농장과 조합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성적 향상에 기여

청풍농장 김진관 사장뿐만 아니라 부경양돈농협 양돈지원실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조합 참여 농가를 방문, 서로 양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생산·경영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취재를 하는 날에도 김진관 사장은 부경양돈농협 양돈지원실 김만례 대리와 액상급이기의 개선점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 양돈지원실 김만례 대리가 액상급이기의 개선점을 살펴보고 있다.

농장에서 바람직한 액상 급이기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일선 양돈장에서 사용한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더 나아가서 부경양돈농협 조합 농가들에게도 보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 여건이 되지 않아서 조합에 못 들어오는 농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김진관 사장은 대한양돈협회가 비영리 단체로서 양돈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양돈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부경양돈농협은 양돈인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직접적인 이득

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조합운영과 관련해 김 사장은 지금은 부경양돈농협에 가입하고 싶어도 농장 사정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다고 전하면서 이들도 조합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이 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돈**

